

대선캠프에도 ‘호남’이 없다

文·安 진영 지역인사 전멸...朴 캠프 그나마 몇명 포진

18대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하며 치열한 경쟁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 대선 후보 선대위 핵심 그룹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광주·전남지역은 다시 변방으로 밀려지 않는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친노 성향 지역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핵심 그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공약과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워 맨’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목포가 고향인 전해철 의원이 핵심 그룹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지역 정치권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선대위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광주 출신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가 경제 정책 전반을 맡고 있지만 정책 분야에 국한된 실정이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광주·전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 영입에 고민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핵심 그룹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더 많이 포진한 상황이다. 박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최고위원(곡성)이 공보단장을 맡아 최전선에 나가 있고 김광두 서강대 교수(광주)가 합천경제추진

단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이성현 전 의원(영광)이 조직 총괄을, 김장수 전 의원(광주)이 국방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공보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도 광주·전남 출신이 없는데다 각 후보 선대위 핵심 그룹에서도 지역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선에 대한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끼 휘두르며 극렬 저항 매뉴얼 따라 고무탄 발사”



중선원 사망사고 목포해경 브리핑

목포 해경이 쏜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선원 장모(44)씨는 사고 직전 도끼·톱을 휘두르며 진압에 거칠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단속 대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고무탄을 발사했으며, 장씨는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 5발 중 마지막 탄에 맞은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기사 3·6면> 강성희 목포해양경찰서장은 17일 오후 목포해경 5층 대강당에서 중국선원 고무탄 사망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숨진 장씨는 해경 대원이 발사한 5발의 고무탄 가운데 마지막 발을 왼쪽 가슴에 맞았다”고 말했다.

첫 탄은 조타실로, 2·3·4탄은 중국선원 사이로 날아갔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고무탄에 의한 것인지 부검을 통해 밝혀진다고 말했다.

강성희 서장은 “검문검색에 응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고무탄을 절대 발사하지 않는다”면서 “격렬하게 저항, 단속 요원의 생명이 위험해 매뉴얼에 따라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경은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고무탄을 맞고 숨진 장씨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장면을 영상에서 확인, 공개했다.

해경 현장 단속 요원이 찍은 5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단정을 타고 검문 검색을 시도하는 해경에 맞서 장씨가 톱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다른 선원들이 길이 1.2m 가량의 삼자창 등을 휘두르며 대항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경은 13명의 중국 선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탐안권 주(駐) 광주 중국 총영사는 이날 오전 목포해경을 방문, 강 서장으로부터 1시간여 동안 중국선원 사망 사고 경위를 듣고 원만한 해결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적조 폐죽음 당하느니” 양식장 첫 방류

전남도, 마리당 500원씩 보상

때 아닌 ‘가을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선 최초로 여수시 가막만 일대 육상양식장에서 키우던 감성돔 13만 마리가 인근 해역에 방류됐다.

<광주일보 10일자 6면 참조>

전남도는 17일 “적조가 확산되면서 물고기가 폐죽음 당하기 전에 예

산 6400만원을 들여 양식 감성돔 13만여 마리를 깨끗한 바다에 방류했다”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 어류를 사전 방류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돌산읍 군내리 황모(58)씨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감성돔

을 어선과 철부선 등에 나눠 싣고 적조가 퍼지지 않은 금봉리 인근에 방류(사신)했다.

육상수조식은 한정된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적조가 덮치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아예 인근 바다 풀어준 것이다.

적조피해 직전 어류 방류사업은 양식종인 어류의 병성 검사 등을 거쳐 바다에 풀어 놓는 사업으로 마리당 500원(국비 50%·지방비 50%)

의 보상비가 지원된다. 어종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돔, 감성돔, 불락, 돌돔 등 4종이며 다른 치어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1년산만을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 등 적조가 출현하는 지역은 대부분 방류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마리당 보상이 적어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2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12. 10. 21(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성호

전남대 마지막 직선총장 지병문 교수 36.4% 득표를 당선...윤택림 후보 2위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재선거 결과 1순위 후보자에 지병문(59·정치외교학과·사신) 교수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7면>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용봉캠퍼스·여수 둔덕캠퍼스·광주 학동캠퍼스·화순전남대병원 등 4곳에서 치러진 총장 선거 본선 투표

에서 지 후보는 431표(36.4%)를 얻었다. 윤택림(54·의학과) 후보는 412표(34.9%)로 2위에 올랐다. 전남대는 다수 득표자 1·2위를 총장 후보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로 선출되는 제19대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 후보는 광주 일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제17대 국회의원, 민주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10월20일(토) 오후 5시~9시
아시아문화마루 夜벼룩시장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서 예술창작 소품들의 장터가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물건, 즐거운 공연, 재미있는 체험이 있는 아시아문화마루 夜벼룩시장으로 오세요!
■ 일시 10월20일(토) 오후 5시~9시
■ 장소 아시아문화마루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
■ 셀러신청 sudeng@korea.kr
■ 문의 아시아문화마루(☎062-236-0481)
NAVER 문화마루 Q 공식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